

융합화 시대의 정보통신전략

I. 머릿말

출처 : 신일본ITU저널 Vol.25, No. 11
역자 : 전현신/TTA 표준 3부

전기통신의 「융합」이라는 말이 일컬어지기 시작한지 오래되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전기통신과 컴퓨터의 기술융합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내면서 시장의 융합, 산업의 융합으로 발전해왔다. 미국의 AT&T의 분할이나 영국의 BT의 민영화, 일본의 NTT가 민영화가 이루어진지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90년대에 들어와서 정보 슈퍼하이웨이가 세계적인 정책과제가 됨과 동시에 21세기를 타겟으로 한 기업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정보통신, 또는 정보화에서 압도적으로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정보 슈퍼하이웨이 시대를 겨냥한 기업의 다이나믹한 체제형성이 M&N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8월에 발표된 월트 디즈니의 개편탈 시트즈ABC의 흡수합병, 이어서 발표된 타임워너의 터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의 매수계획은 메카미디어에 의해 콘텐츠에서 디스트리뷰션에 이르는 수직통합을 노리는 것으로 세계에 큰 쇼크를 주었다. 미국의 1995년 통신법의 최종적인 결착과도 관련하여, 개별적인 방향은 어느쪽으로 낙찰될지 불분명한 점도 많으나, 적어도 슈퍼하이웨이가 풀가동하는 21세기의 정보화세계로 향한 기업전략의 방향성을 볼수있는 상황이 되어왔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융합화의 방향을 정리하면서, 이러한 면에서부터 이후의 정보통신기업의 전략방향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1. 융합화의 진전

반도체기술과 디지털기술의 진보에 의하여 전기통신과 컴퓨터의 융합이 1980년대에 진전을 보이고, 나아가 네트워킹을 중심으로한 시대를 맞이하였다. 또, 디지털기술의 진보에 의해, 음성과 데이터와 영상을 융합시킨 멀티미디어 기술이 등장하고 여러가지 차세대 서비스를 창출하기 시작했다.

전기통신이 전화중심의 시대에서 멀티미디어의 시대로 진행되는 중에 VOD(Video on Demand) 서비스, 원격의료, 원격교육, Interactive Shopping, Teleworking등 다수의 새로운 서비스 개념이 생성되어왔다. 이러한 것들은 어느것이나 정보하이웨이와 함께 데뷔한 새로운 서비스 개념이다. 한편, 네트워킹의 진보와 미래의 슈퍼하이웨이 시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사이버 스페이스 비즈니스(네트워킹상의 전자거래)가 타겟이 되어 일종의 하이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전기통신기술의 발전중에서 현저한 동향은 셀룰라나 PHS등으로 대표되는 무선이용 분야이다. 종래, 무선기술은 방송이나 이동체용 통신에 사용되어 왔는데, 기술의 진보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라는 통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개인용 휴대전화로서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고정전화망과 시장에서 경합하는 상황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무선의 진보로 고정전화 시장과 무선시장이 융합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셀룰라전화의 로밍에 의해서 유럽에서

는 이미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 시장의 융합이 일어나고 있고, 장래에 1대의 단말기로 세계 어디에서나 통화 할 수 있는 환경이 실현되는 것도 가상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LEO위성에 의한 휴대전화의 보급도 예상되고 있어, 바야흐로 세계가 하나로 융합하게 된다.

멀티미디어 기술의 진보는 그 자체가 기술융합의 결과이지만 그 응용에 있어서 여러가지 융합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정보 슈퍼하이웨이 상에서 일어나는 최대의 융합이라고해도 좋을 것이다. CATV 네트워크를 사용한 전화 서비스가 영국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로서 급성장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93년말에 규제완화로 실험적인 서비스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2. 융합화를 촉진하는 규제의 짜임새

기술융합의 진전,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과 함께 정보통신의 법규제 짜임새도 계속 변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선두주자인 미국에서는 클린턴 정부의 탄생이래 진행해온 통신법 개정이 우여곡절을 거쳐 겨우 실현될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6월 15일 상원본회의에서 1995년 전기통신 경쟁 및 규제완화 법안(통칭 플레스트라법안:S-652)이 가결되고, 이어서 8월 4일 하원본회의에서 대체로 비슷한 1995년 통신법안(통칭 브라이리법안:HR-1555)이 가결되었다. 이 두가지 법안은 이후 다소의 수정후에 일체화되어 연내에 성립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내용은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제한의 완화, 시내전화사업과 CATV사업의 상호참여규제 철폐, 시내전화사업의 경쟁도입, RHCs (벨 지역주식회사)의 장거리통신과 기기 제조의 참여해금이 골자로 되고있다. 이후, 법안의 일체화 과정에서 동일영업구역내에 지역전화회사와 CATV회사간의 상호소유금지 조건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가 문제이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정보통신과 미디어세계가 거의 완전한 경쟁을 전제로한 환경으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법개정의 움직임과 함께, 미국의 정보통신업계에서는 장래를 향한 업계의 합종연형(合從連衡) 또는 업계재편성의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1991년에 지금까지의 복점체제에 종지부를 찍은 본격적인 자유경쟁시대에 들어갔고, 외국자본의 케이블TV사업 자본참가도 있어서 케이블TV의 시내전화 서비스가 급증하고, 또 장거리, 국제통신분야에서도 외자계기업을 포함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내와 국제분야, NTT의 분할문제, 상호접속요금등 남겨진 문제는 적지않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쟁적환경 아래에 있다. 실질적으로는 셀룰라나 PHS의 도입이나 CATV 네트워크에 의한 전화 서비스나 인터넷접속등의 시도가 시작되고 있어, 시내전화 서비스가 경쟁시대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아무래도 각국의 정책은 21세기의 정보화시대의 인프라정비와 새로운 서비스를, 경쟁을 전제로한 민간주도로 시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규제완화의 흐름속에서 통신, 정보, 미디어기업은 살아남기위해 21세기를 향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3. Contents에서 Distribution까지 수직통합으로

정보화사회를 향해 계속 선두를 달려온 미국의 업계는, 지금까지 수도없이 업계재편성을 반복해왔으나, 지금 일어나고있는 재편성의 움직임은 다가올 멀티미디어 시대에 Contents에서 Distribution의 네트워크까지 통합화 하려하는 궁극적이고 거대한 메카미디어의 탄생을 예상하는 지점까지 와있다.

1993년 10월에 발표된 벨 아트랜틱과 TCI의

합병은 끝내는 성립되지 못하고 끝났지만, 정보 슈퍼하이웨이 시대를 염두에 둔 흡수합병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였다. 그후 RHCs는 US웨스트의 타임 워너엔터테인먼트의 주식취득(영상소프트의 액세스가 목표), 나이넥스의 바이어콤(파라마운트의 영상소프트를 목표)의 출자등, 정보 콘텐츠로의 접근을 계속하고 있다. 또, RHCs가 콘텐츠를 중심으로 업계내 기업동지로 제휴하는 움직임도 눈에 띄는 경향이 있다. 이방면에서는, 나이넥스, 벨 아틀란틱, 퍼시픽 텔레시스 3개사가 영상소프트나 홈쇼핑 프로그램 제작의 합병기업을 설립하고, 벨사우스와 SBC커뮤니케이션즈는 디즈니와 제휴하여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제작회사의 설립에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케이블TV 업계에서는 주요한 MSO(Multiple System Operator)가 중소MSO를 흡수합병하여 영업구역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TCI는 1994년 12월에 텔레케이블사(가입규모:74만세대)를 매수하고, 거기에서 바이어콤의 케이블 TV부분의 매수도 진행하고 있다. 업계2위인 타임 워너는 94년 후반부터 중소규모 MSO의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가입자수를 1,000만세대 이상으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케이블TV 회사의 전략은, 전화회사와 달리 프렌차이즈가 세분화되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규모의 확대에 효율적인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4. 메카·미디어시대로의 흡수병합

미국의 지역전화, 장거리전화, 케이블TV의 합종연형(合從連衡)의 움직임은 정보 슈퍼하이웨이 구상과 함께 다양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1995년 전기통신법의 성립과 타이밍을 맞춰서 새롭게 표면화 된것이 미디어산업의 거대기업합병과 업계재편성의 움직임이다. 지난 7월 31일,

월트 디즈니가 미국의 3대 네트워크의 하나인 캐피탈시티즈ABC를 흡수하고 산하에 두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기업매수는 그 규모가 약 190억달러로 미국의 흡수·합병시장에서 두번째로 거액에 달하고, 영화, 뉴스, 음악, 스포츠 등의 오락소프트 제작에서 방송, 배급까지 일관하여 손수 다루는 거대한 미디어 콘그로메리트(Conglomerate)의 탄생을 의미한다. 8월에, 타임 워너가 CNN을 산하에 가진 터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TBS)의 매수를 발표했다. 이 매수가 실현되면, 합병후 타임워너는 매상규모로도 캐피탈시티즈ABC를 매수한후의 디즈니를 웃도는 거대한 미디어기업이 된다. 사업내용은 영화, 음악, 출판, TV프로그램, 뉴스 배급에서 방송, 케이블TV 시스템까지 모든 분야를 커버하는 거대 미디어 백화점이 된다. 그외에 웨스팅 하우스에 의한 CBS의 매수도 발표되어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미디어의 재편성의 시작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매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규제완화 속에서 방송국의 소유제한, 프로그램 제작규제의 완화등이 시행되는 것과 대응하는 전략전개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규제환경에서는 신문, 방송, 케이블TV업자들의 상호경계를 넘는일이 가능해 지므로 콘텐츠에서 디스트리뷰션까지 광범위한 지역과 사업을 커버하는 콘그로메리트(Conglomerate)를 노리는 흡수합병은 이후에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 중에서 캐쉬프로와 자산력에 힘이있는 RHCs가 콘텐츠나 신문, 방송 분야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

흡수합병의 프로세스는 복잡하여, 그후의 전개를 개별적으로 예상하는것은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새로운 규제환경이 정비되어 21세기로의 전략포석을 마련하는 활동이 최후의 국면에 달했다고 말할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로서는 종래의 인플라와 콘텐츠(자산과 개발의 조립의 양면에서)를 억제하고, 장래의 경쟁을 유리하게 전

개하는 것에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다.

5. 국제화에 대한 대응

산업경제의 국제화·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전기통신 정보분야의 국제적인 전략전개도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통신 세계는 원래 국제적인 범위를 가지고, 시물러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며, 정보통신의 기술적인 진보와 더불어, 다국적기업의 활동, 정보화 시대를 향한 사회기반으로서의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GII)의 구축이 G-7 Summit의 중요 의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기통신, 정보산업 정책의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흡수·융합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 기업이 국제적인 전개를 꾀하는 환경으로 정비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근래의 구체적인 움직임으로는 민영화에 의한 전기통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의 선진국 전기통신업자의 참여, 세계적인 아웃소싱시장을 원 스톱 쇼핑의 서비스로서 이익증대를 꾀하는 주요 캐리어 어라이언스(alliance) 전략의 전개등 규제완화를 하고있는 각국 시장으로 국제전개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전기통신 사업자의 국제전개 가운데 눈에 띄는 것으로 미국 RHCs의 해외진출이 있다. AT&T 분할에 의해 지역내 전화 서비스로 활동이 제한된 RHCs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전개하고, 기본전화 서비스에서부터 이동통신, 케이블 TV서비스, 국제통신분야에 이르기까지 현지기업과의 합병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진출국 수는 각사 10개국 정도 또는 그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부터 구공산권 여러나라,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전기통신 사업에 커다란 영향력을 지닌 존재가 되고 있다.

한편, 세계 미주어 캐리어(measure career)제휴는 BT의 신콘디아설립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그후 AT&T를 중심으로하는 월드 파트너즈, BT-MCI 그룹에 의한 콘서트, 독일 텔레콤-프랑스 텔레콤-스프린트 그룹의 웨닉스 등이 형성되어 본격적으로 전개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어라이언스(alliance)는 당초 아웃소싱 비즈니스 제공에서부터 이후에는 세계적인 규제완화 진전에 따라 제휴사업 활동에 폭을 넓혀, 세계시장 가운데 살아남은 어라이언스간의 경쟁체제로 전개되어 가는 것이 예상된다.

개발도상국의 민영화로의 이행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있고, 점점 세계의 통신기업과 신규참가를 도모하는 기업의 타겟이 될것이다. 금년에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국내통신 입찰이 이루어져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는데, 이어서 경제발전이 빈약한 아시아제국이 타겟이 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통신업자의 다국적전개에 의해서 전기통신의 세계는 점점 국제적인 링케이지를 강화해 나가게 된다.

II. 맺음말

이상, 정보통신 분야의 융합화의 흐름과 첨단을 달리는 미국 업계의 동향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일본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면의 제약과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루지 않았으나 마지막 막으로 한마디 해두고 싶다. 일본에서는 최근 셀룰라, PHS, CATV네트워크 사업의 새로운 전개등 일본내 신규참가자가 늘어 활동적인 전개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전개에 관해서는 미국과 영국의 통신업자들의 활동과 비교하여 수동적 전개에 그치고 있다. 규제완화에 의해 세계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융합하는 추세에서, 국제적인 주도권을 잡을수 있도록 활동적

인 사업전개가 요구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쌓아올려온 생산기술의 우위성에 의한 주도권으로 국제화를 유리하게 전개하고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분야에서도 다가올 정보화시대

에 일본기업이 세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환경의 정비와 기업자체의 구조변혁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할 수 있다.

표. 미국의 정보통신관련 재편기업의 사업커버 분야

사업분야	디즈니	ABC	TW	TBS	TCI	Viacom
TV방송	○	○		○		○
TV네트		○	○	○		○
Cable·System	○		○		○	○
Cable·Net		○	○	○	○	○
라디오방송		○	○			○
영화관			○			○
테마·파크	○		○			○
홈 비디오	○		○	○		○
영 화	○		○	○		○
음 악	○		○			
TV프로그램제작	○	○	○	○		○
출 판	○	○	○			○
신 문		○				
매상규모 : 억달러	101	64	159	28	49	101

주 : 각종자료에 의해 저자 작성

○ : 커버하는 분야